

■ 語文論文

派生接尾辭의 생산성과 派生語 집합의 빈도특성

—計量的 接近—

李 光 鎬

(서울大 博士課程 修了)

要約 및 抄錄

본고는 形態論의 生産性을 새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能力으로 이해하고 確率的 次元에서 生産성에 接近하여 12개 접사의 生産성 및 生産적인 접사와 비生産적인 접사가 만들어내는 派生語 集合의 頻度特性을 밝혔다. 生産성 수치가 높은 접미사들이 만든 파생어의 類型頻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형빈도가 높을수록 生産성이 높지는 않았다. 生産성에서 類型頻도보다 중요한 것은 파생어의 頻度分布이다. 生産성이 높은 파생어 집합은 다수의 저빈도 단어가 전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빈도 단어의 비율이 매우 낮다. 반면에 生産성이 낮은 파생어 집합은 고빈도 단어의 구성 비율이 높고 저빈도 단어는 구성비율이 낮다. 저빈도 단어는 접사에 대한 分析的 處理를 반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접사에 대한 分析的 認識이 강해진다. 그 결과 다수의 저빈도어를 보유하고 있는 접사는 새로운 語基와 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새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 핵심어 : 生産性, 接尾辭, 派生語, 類型頻度, 個別頻度, 頻度分布, 코퍼스

I. 확률적 개념으로서의 生産성

單語形成, 특히 派生語形成은 문장형성이나 굴절과는 달리 규칙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과정automatic formation이 아니라 산발적인 과정sporadic formation이다(Matthews, 1974:52). 새 단어를 만드는 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접사가 있는 반면 조금 적게 사용되는 접사도 있고 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접사도 있다.¹⁾ 이는 형태론의 生産성이 질적 차원의 絶對的

概念이 아니라 양적 차원의 相對的 概念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 상대성이 측정되어 比較될 수 있을 때 생산성에 대한 研究가 그 實體性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많은 학자들은 형태론의 生産性을 새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能力이나 可能性으로 이해했다.²⁾ 이는 생산성의 측정과 그 비교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단어수를 접사별로 세고 그 숫자를 단순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접사가 특정 시점 이전에 없던 새 단어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생산성의 측정과 비교가 타당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화자는 어떤 接辭가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직관은 確率的 屬性을 내포하고 있다. 대상과 방법론 사이의 정합성이 높을수록 대상의 속성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화자의 이런 정도적 직관을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확률적 관점에서 생산성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³⁾

형태론이 설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단어형성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단어형성이 개별접사에 따라 정도성을 확연히 보이고 그것이 생산성이라는 현상으로 이해된다면 생산성 또한 형태론이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뿐 아니라 단어형성만의 특징적인 현상인 생산성이야말로 조어론 연구의 本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어론 연구에서는 生産性이 심도 있게 탐구되지는 못했다. 모든 어형성규칙을 생산적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 言語能力的 次元의 接近에서는 생산성 연구가 그 타당성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고, 생산성의 程度的 差異를 분명히 인식했

1) Aronoff(1976:35). Though many things are possible in morphology, some are more possible than others.

2) Bauer(1983:18)에서는 단어형성 과정이 새로운 형태를 생성하는 데 공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生産的이라고 했고, Spencer(1991:49)는 규칙이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규칙적이고 역동적으로 사용될 때 生産的이라고 했으며, Plag(2003:44)는 새로운 복합어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接辭의 특성을 生産性이라고 규정했다.

3) 生産性을 확률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접근하는 많은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Aronoff(1976), Anshen and Aronoff(1988), Baayen(1989, 1991 etc), Bolinger(1948), 차준경(1995), 강범모·차준경(1996).

더라도 直觀的 次元에서는 그 정도성을 명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단어형성을 능력의 차원만이 아니라 수행의 측면과도 심도 있게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⁴⁾ 또한 자료적 측면에서는 형태 정보를 부착한 대규모 코퍼스가 구축되어서 단어형성과 관련된 정도성을 가진 정보를 실제로 抽出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성과에 기대어 현대국어 파생접미사의 생산성을 計量하여 각 접사별 생산성의 차이를 명시하고 생산적인 패턴과 비생산적인 패턴의 對照的인 特性을 밝히는 동시에 생산성의 필요충분 조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生産性 測定의 方法論에 대한 再考

1. 파생어의 총 개수 비교

‘파생어의 총 개수 비교’는 사전에 登載된 파생어의 수가 많으면 生産的, 그렇지 않으면 非生産的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생산성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라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는 생산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단어는 오히려 辭典에 등재되지 않는 반면 비생산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된 단어는 사전에 등재되는 傾向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접사가 만들어 낸 파생어의 수가 많다는 것이 결코 그 접사가 현 시점에서 생산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접사는 현재 전혀 생산성이 없더라도 과거의 생산성 때문에 수많은 파생어를 가질 수 있다. Bauer(2001:9, 181)에 따르면 영어의 접미사 ‘-ment’는 20세기 이후 전혀 새 단어를 만들지 못하지만 16~19세기 사이에 생산적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수많은 파생어를 가지고 있다. Plag(1999:98)은 영어의 접미사 ‘-en’도 많은 파생어를 가지고 있지만 1900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파생어를 만들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런 결과는 시간의 차원에 대한 고려 없이 파생어 수의 비교만으로는 생산성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4) 채현식(2000), 송원용(2005), Bybee(1985), Bybee(1988).

셋째는 語基에 대한 선택제약이 고려되지 않은 채, 파생어의 수만으로 생산성이 올바르게 測定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접사 중에는 결합 가능한 어기가 개방 집합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심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결합 가능한 어기의 수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도 생산성을 파생어의 총수로 판정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

2. Aronoff(1976)의 방법 : 실제어 對 잠재어

1절에서 언급한 파생어 수의 비교가 갖는 盲點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Aronoff(1976)은 잠재어에 대한 실제어의 비율을 생산성의 지표로 제시하였다. 그 공식은 아래와 같다.

$$P = \text{actual} / \text{possible}$$

실제어란 실제 사용되는 단어를 뜻하고, 잠재어란 원리적으로 그 접사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를 뜻한다. Aronoff(1976)에 의하면 ‘실제어 對 잠재어’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생산성에 접근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심각한 결함을 갖는다. 첫째는 이 모형이 직관과는 정반대되는 예측을 한다는 것이다. 매우 생산적인 접사의 경우, 사실상 그 잠재적 어기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어가 많다 해도 생산성 지표는 0에 가깝게 된다. 반대로 상당히 비생산적인 접사의 경우, 잠재어와 실제어의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 지표가 1에 가깝게 된다. 이는 生産性에 대한 화자의 직관과 정반대되는 예측이다.⁵⁾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潛在的인 語基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객관적 기준을 통해 잠재적 어기를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 방법의 가장 큰 맹점이다.

둘째는 이 모형도 단어형성과 관계되는 時間의 次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生産性은 특정 시점에 만들어진 새 단어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5) Aronoff(1976)이 갖는 이러한 맹점은 Anshen & Aronoff(1981:64)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공시적 개념이다. 그런데 Aronoff(1976)의 공식은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실제어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공식으로는 특정 時點의 생산성을 확인할 수 없다. Aronoff(1976)은 단어형성을 생성이론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모든 파생어를 공시적 규칙의 산물이라고 판단하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단어형성은 遂行的 特性和 通時的 特性을 강하게 가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能力的 次元에서만 논의될 수는 없다.⁶⁾

3. Baayen(1993)의 방법: 단발어 對 해당 접사가 만들어낸 파생어의 총수

Baayen(1993)은 특정 접사를 통해 형성된 단어 중 코퍼스에서 1회 출현하는 단어가 많을수록 그 접사의 생산성이 높다고 판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해당 접사를 가진 단어의 총빈도에 대한 單發語의 비율을 생산성 지표로 제시하였다. Baayen은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로 單發語hapaxlegomena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인정한 것이다. 그 공식은 아래와 같다.

$$P = n1 / N$$

n1: 단발어의 수, N: 그 접사가 만들어낸 파생어의 총수

분자는 접사가 만들어낸 단발어의 개수이다. 분모는 접사가 만들어낸 파생어의 총수이다. 단발어는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출되는 단어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즉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산성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공식은 해당 접사를 가진,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은 단어를 만날 確率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모든 단발어가 신어는 아니지만 단발어가 많을수록 그 안에 포함된 新語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접근법은 생산성에 대한 화자의 직관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을 내놓을 수 있다. 또한 Baayen(1993)의 방법은 확률적 개념이면서 시간의 차

6) 단어형성의 통시성과 언어수행적 특성에 대해서는 Bauer(2001:28), 채현식(2000:12), 송원용(2005:76~82), 이광호(2005:126) 참조.

원을 고려해야만 하는 공시적 개념인 生産性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방법에서는 코퍼스를 구성하는 텍스트의 생산시기를 통제하여 특정한 기간의 새 단어만을 모아 생산성 논의를 공시태의 현상으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이렇게 단발어 중심으로 이해할 때 생산성에 대한 근원적인 疑問이 생길 수 있다. 코퍼스의 성격에 따라 단발어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자체가 실체성이 없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발어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생산성이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자체가 코퍼스의 여러 속성(크기, 시기, 장르 등)에 영향을 받는 流動的 概念임을 것을 알려준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성은 理論的 次元에서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정도성의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具體的 言語使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流動的 概念의 生産性이야말로 생산성의 屬性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生産性を 例外 없는 原則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강한 確率的 傾向性으로 이해할 때, 생산성에 대한 이해를 더 넓고 깊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Baayen의 방법은 생산성의 本質을 드러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4. Baayen의 方法論이 갖는 限界⁷⁾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ayen의 방법론은 생산성의 공시성과 확률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그러나 이 방법이 完全無缺한 것은 아니다. 분자와 분모에 단발어와 접사가 만든 모든 단어의 수가 언어학적 여과 과정 없이 대응되기 때문에 Baayen의 방법은 생산성의 本來的 屬性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單發語란 코퍼스에서 1회만 출현한 단어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상이 포함된다.

- ① 이전에는 없다가 새로 생성된 단어(신어)
- ② 해당 언어 전체에서 본래 저빈도인 단어(몇몇 사람의 어휘부 속에만 존재, 극히 제한된 문맥에서만 사용)

7) 이 장은 Brown(2001)을 참조하였다.

③ 코퍼스의 특성상 나타나는 단발어(통계적 우연)

신어를 통해서 접사의 生成力을 측정하려고 했던 Baayen이 본래 의도했던 것은 ①인데, ②와 ③까지 단발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산성 지표가 실제 생산성보다 커지는 오류가 발생한다. Baayen 공식의 분모인, 그 접사가 생성한 단어의 총수도 코퍼스에서 산출되는 숫자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실제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파생어의 頻度가 높을 경우, 그 파생어는 여기와 접사가 분리되어 처리되기보다는 그 전체가 어휘부에 저장된다.⁸⁾ 이는 여기와 접사의 결합이 어휘화되면서 그 파생어를 引出할 때 더 이상 접사와 어기를 결합시키는 과정이 반복되지 않아 접사가 활성화되는 기회를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단일체로 처리되는 고빈도 파생어는 접사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⁹⁾ 그러나 Baayen 공식에서는 빈도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파생어의 빈도가 合算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생산성 지표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모두 코퍼스에서 산출되는 수치를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충분한 고려 없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이다. 이는 量的 研究가 자료에 기반한 접근이기 때문에 실증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긴 하지만, 계량의 과정에서 質的인 次元의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지 않을 때 여러 오류 가능성을 스스로 內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언어에 대한 量的 接近과 質的 接近이 상호 협력할 때 서로에게 상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데 생산성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영역이다.

8) Baayen and Lieber(1991:807) In what follows we will make the simple assumption that derived formations are more likely to be stored as their token frequency increases, whatever the productivity of underlying word-formation process may be.

9) Hay(2001:1043) frequent words are not accessed via the components they contain and so do not contribute to the productivity of the related suffix.

5. 本 研究의 生産性 指標 算出 方式

Baayen의 방법론은 생산성의 確率的 屬性을 파악하는 데 有用하긴 하지만 몇 가지 限界도 동시에 가진다. 본고에서는 그 한계의 原因을 最小化하는 방향으로 Baayen의 방법론을 수정하여 理論的 次元에서도 합리적이고 話者의 直觀에도 符合하는 생산성 산출 방식을 제시한다.

1) 分자의 재검토

분자에 단발어의 수가 아니라 新語의 수를 對應시킨다. 신어를 확정하기 위해서 본고는 코퍼스에서 각 접사가 만들어낸 1~2회 출현어의 목록에서¹⁰⁾ 신어가 아닌 단어들을 제외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다음 네 방식을 차례로 적용한다. 첫째는 단발어와 2회 출현어 목록을 사전 목록과 비교하여 사전에 등재된 목록을 제외하는 작업이다.¹¹⁾ 둘째는 표준사전 목록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은 기존 단어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辭典이 모든 기존 단어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신어로 판정될 수 있는 단어를 제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1~2회 출현어의 목록을 출판연도가 1999년 이전인 형태 분석 코퍼스의 어절과 비교하여 그 출현이 확인될 경우 新語에서 제외하였

10) 新語 추출의 대상 범위를 확장시키되 그 범위를 2회 출현어까지로 제한하는 이유는 Baayen and Renouf(1996:75~76)에 근거한다. 이 연구에서는 Time지에 나타난 1회에서 5회 출현어까지 각각의 類型頻度와 그 유형 중에서 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비율을 조사하여 밝혔다. 그 결과, 1회 출현어 중에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가장 많은 新語가 관찰되었고 다음 순서로 갈수록 新語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5회 출현어에서까지도 新語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3회 출현어부터는 그 비율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런 외국의 연구 결과를 근거를 바탕으로 작업의 편의를 위해 新語 관찰의 대상 범위를 2회 출현어까지 한정하였다.

11) 신어는 전에 없다가 새로 생겨난 단어이므로 기존 단어의 목록이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신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어의 목록이 필요한데 공신력 있는 기존 단어의 목록은 사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0년 1월에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존 단어의 목록으로 기준을 삼아 단발어와 2회 출현어 중 표준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생산성 측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셋째는 위의 두 작업을 통해서 걸러진 파생어 중 어기의 빈도가 매우 낮거나 불분명한 단어를 제외하는 작업이다. 생산성은 어기와 접사가 분석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클수록 크다고 할 수 있다.¹²⁾ 그런데 어기가 심한 저빈도의 단어일 경우에는 話者が 어기와 접사를 결합시켜 새 단어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하나로 어휘부에 등록된 어형을 그대로 인출해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경우의 1~2회 출현어는 생산성의 증거를 보이는 신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파생어 자체가 저빈도어이기 때문에 1~2회 출현어인 단어를 제외하는 작업이다. 몇몇 사람의 어휘부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극히 제한된 문맥에서만 출현하는 단어가 1~2회 출현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2) 분모의 재검토

분모에는 어기-접사의 결합과정이 살아 있다고 판단되는 파생어의 총수를 대응시킨다. 접사의 生成力은 어기와 접사의 分析的 處理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는 파생어의 빈도가 높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고빈도 파생어는 語彙強度가 높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어휘부에 登載되고 引出될 가능성이 높다. 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한 단위로 인식되는 고빈도의 파생어는 접사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성과 無關한 고빈도의 파생어의 총수도 생산성 지표 산출 공식에서 除外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50회 이상 반복 출현한 파생어는 생산성 척도의 계량에서 除外하기로 한다.¹³⁾

12) Plag(2004:14~5). If in a morphological category there is a large preponderance of derivatives with a decomposition bias, the pertinent affix will have a strong representation and will therefore be readily available to the speaker to be used in new combinations. If, on the other hand, there is large proportion of derivatives with a whole-word bias, the affix will not be readily available for the creation of new forms.

13) 몇 회 이상 사용되어 결합과정이 반복되어야 하나의 단위로 등재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반복 횟수를 50회 정한다.

3) 生産性 指標 算出 公式

본고에서는 생산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대체적으로 Baayen의 방법론을 따르면서 그 計量 方式에 몇 가지 중대한 修正을 가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P = N(\text{신어}) / N(\text{어기-접사의 결합과정이 인정되는 파생어})$$

이는 생산성의 本質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 이론언어학과 심리언어학의 연구성과를 계량의 방법론에 有機的으로 結合시킨 것이다. 이는 計量言語學이 받아 왔던, 언어 단위의 수를 세고 기계적인 연산을 통해 결과를 낸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언어학의 이론적인 측면과 계량적인 측면이 相互 協力할 때 한 쪽의 방법론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의 探究가 가능함을 보이기 위한 시도이다.

Ⅲ. 現代國語 派生接尾辭의 生産性

1. 調査 對象 코퍼스

본고의 목적은 2000년 이후 국어 파생접미사의 생산성의 정도적 특성과 생산성의 조건을 밝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세종계획기초자료분과에서 구축한 형태분석 코퍼스 중 출판연도가 2000년 이후인 텍스트만을 선별하여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116개 텍스트, 4,383,285어절이다.

2. 個別 接辭의 生産性

본장에서는 다음의 12개 접미사를 대상으로 개별 접사의 생산성을 계량하여 생산적인 접사와 그렇지 않은 접사를 구별하여 제시한다.

대상 접미사 : -꾼, -장이, -쟁이, -성(性), -화(化), -개, -질, -대-, -거리-,
-롭-, -스럽-, -적(的)

1) 명사파생접미사 ‘-꾼’, ‘-장이’, ‘-쟁이’

1	경마꾼	1	셋방살이꾼	중 략	8	호객꾼	52	일꾼
1	계꾼	1	쇠꾼		10	통일꾼	53	사기꾼
1	낙타몰이꾼	1	신고꾼		11	난봉꾼	58	장사꾼
1	달머꾼✓	1	씨름꾼		11	노름꾼	85	사냥꾼
1	데모꾼	1	야경꾼		11	심부름꾼	244	이야기꾼
1	말재간꾼	1	약탈꾼		14	소리꾼		
1	매구꾼	1	염탐꾼		15	파수꾼		
1	몇섬꾼	1	외화벌이꾼		19	거간꾼		
1	민요꾼	1	익살꾼		22	술꾼		
1	바둑꾼	1	인력거꾼		25	농사꾼		
1	산꾼	1	잔소리꾼		34	구경꾼		
1	선소리꾼	1	재담꾼		40	뉘시꾼		
1	세배꾼	1	절도꾼		n<50:391, n<2:40, N:5, 유형:82			

<표 1> 접미사 ‘-꾼’의 派生語와 빈도

‘-꾼’, ‘-쟁이’, ‘-장이’는 모두 여기와 관련된 屬性이나 技術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¹⁴⁾ ‘-꾼’이 만들어낸 파생어는 총 82가지인데 이중 1~2회 출현어는 40개, 신어는 5개이다. 1~2회 출현어의 비율이 전체의 49%(40/89)를 차지하기 때문에 ‘-꾼’ 접미파생법을 생산적인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2회 출현어의 대부분은 명명적 필요에 의해서 새로 생성된 단어가 아니라 기존 단어의 사용빈도가 줄어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꾼’ 파생어에 소멸의 단계에 놓인 유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미사 ‘-꾼’의 생산성은 이전에 비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4) 1~2회 출현어 중 음영 처리된 派生語는 확인 결과 표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1999년 이전 텍스트를 형태분석한 코퍼스 전체에서도 출현하지 않은 단어이다. 이들 단어를 대체로 新語라고 할 수 있는데 語基가 불분명한 경우나 派生語 자체의 빈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여 新語에서 제외했다. 표 안의 n<50은 個別頻도가 50회 이하인 派生語 頻度の 총합이며 N은 新語의 개수이다. 이하 모든 접미사와 派生語 정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1	복장이	4	칠장이
1	돌장이	7	석수장이
1	조각장이	7	미장이
2	땀장이	8	간판장이
2	소목장이	15	대장장이
n<50:47, n<2: 5, N:1, 유형:10			

<표 2> 접미사 ‘-장이’의 派生語와 頻度

‘-장이’가 만들어낸 파생어의 종류는 10가지인데 이중 1-2회 출현어는 5개, 신어는 1개이다. 다른 接辭들에 비해 계량된 수치가 모두 상당히 작은 편인데 이는 현대국어에서 ‘-장이’ 파생어의 대부분이 소멸의 단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 시대의 技能人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더 이상 사용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2회 출현어도 생산성을 반영하는 저빈도어가 아니라 기존 단어의 사용빈도가 줄어든 결과라 할 수 있다.

1	걸신쟁이	1	무식쟁이	1	요술쟁이	중 략	12	멋쟁이	n<50:201 n<2: 20 N: 6 유형:41
1	고함쟁이	1	방송쟁이	1	폐병쟁이		13	거짓말쟁이	
1	깨복쟁이✓	1	보험쟁이	2	게으름쟁이		15	겁쟁이	
1	내숭쟁이	1	세살쟁이	2	무섬쟁이		15	빚쟁이	
1	마누라쟁이	1	심술쟁이	2	번덕쟁이		21	월급쟁이	
1	마약쟁이	1	안경쟁이	2	침쟁이		21	점쟁이	
1	말빛쟁이	1	웅고집쟁이	3	그림쟁이				

<표 3> 접미사 ‘-쟁이’의 派生語와 頻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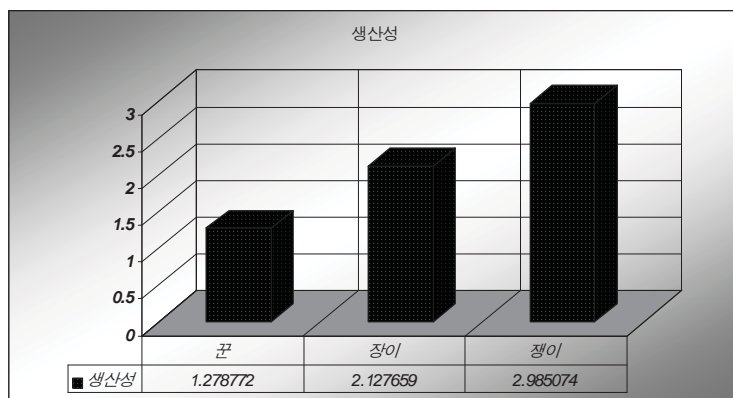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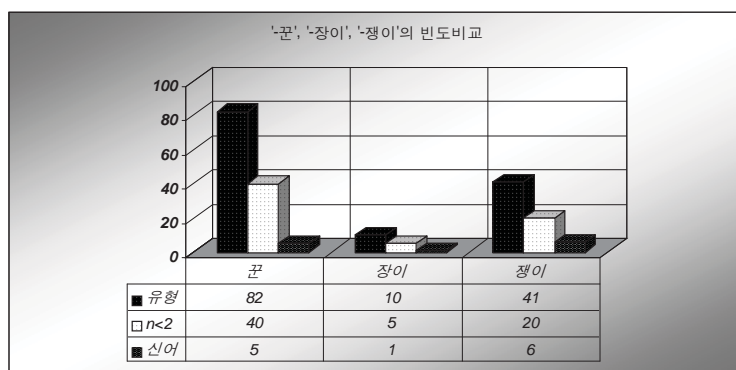
‘-쟁이’가 만들어낸 파생어의 종류는 41가지이고 이중 1-2회 출현어는 20개, 신어는 6개이다. 1-2회 출현어가 전체 유형의 48%(20/41)를 차지하는데 유형빈도가 충분히 높지는 않지만 ‘-장이’ 파생어보다는 생산성을 반영하는 저빈도어가 많다. 이는 ‘-장이’와는 對照的인 모습으로 현대국어에서 ‘-장이’는 생산성을 잃어 가는 반면 ‘-쟁이’는 생산성을 획득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꾼’, ‘-장이’, ‘-쟁이’의 생산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접미사 ‘-꾼’의 생산성	접미사 ‘-장이’의 생산성
$\frac{5}{391} \times 100 = 1.278772$	$\frac{1}{47} \times 100 = 2.127659$

접미사 ‘-쟁이’의 생산성	
$\frac{6}{201} \times 100 =$	2.985074

세 접미사의 생산성을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쟁이’ > ‘-장이’ > ‘-꾼’이다. 그런데 ‘-장이’의 경우 接辭가 생성해낸 단어의 유형빈도와 총빈도, 新語의 빈도 등을 종합해서 내린 생산성에 대한 판단과 공식을 통해 도출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장이’는 분명히 비생산적인 접사인데도 지나치게 높은 생산성 수치를 보인다. ‘-장이’의 유형빈도가 8로 다른 접사들에 비해 매우 작은 상황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단어 1개 때문에 생산성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생산성 도출 방식의 盲點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구에서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한 타자의 타율을 공식 타율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경우 ‘-장이’의 생산성 수치도 ‘-장이’의 생성력을 온당하게 반영해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세 접미사의 양적 특성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1> 접미사 ‘-꾼’, ‘-장이’, ‘-쟁이’의 頻度 및 生産性 비교



1	모듈화	1	역동화	1	천재화	2	산성화	6	유료화	16	안정화	423	활성화
1	모빌화	1	역사화	1	초국화	2	선민화	6	입법화	17	디지털화	435	세계화
1	목적화	1	역순화	1	초자화	2	성분화	6	정교화	17	명문화	n<50:3,508 n<2401, N:158 유형:694	
1	무선화	1	연례화	1	최선화	2	세밀화	6	형해화	18	감량화		
1	무속화	1	연소화	1	최적화	2	세부화	6	화석화	18	부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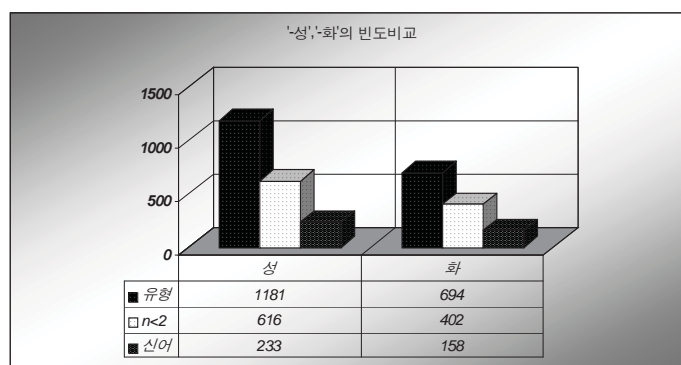
<표 6> 접미사 ‘-化’의 派生語와 頻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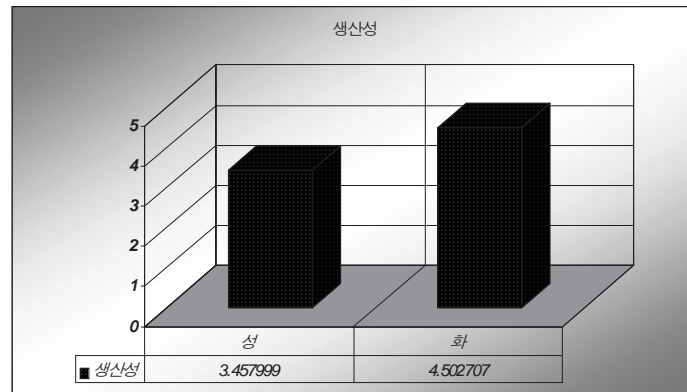
‘-化’가 만들어낸 파생어의 종류는 694가지인데 이중 1~2회 출현어는 401개, 신어는 158개이다. 1~2회 출현어가 전체 유형의 39%(158/401)를 차지하는데 이들 단어도 즉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빈도수 50회 이상의 단어는 30개, 100회 이상의 단어는 9개밖에 되지 않는다. ‘-化’ 파생어도 전체적으로 저빈도의 고른 分布를 보이면서 몇몇 단어에만 빈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접미사 ‘-性’, ‘-化’의 生産性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접미사 ‘-性’의 生産性 $\frac{233}{6738} \times 100 = 3.457999$	접미사 ‘-化’의 生産性 $\frac{158}{3508} \times 100 = 4.503990$
---	---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모두 생산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두 접미사이지만 計量的 結果를 보면 ‘-化’가 ‘-性’보다 조금 더 생산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유형빈도는 ‘-性’이 앞서지만 실제적 상황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化’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접미사의 양적 특성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2> 접미사 ‘-性’, ‘-化’의 빈도 및 生産性 비교





3) 명사파생접미사 ‘-개’

1	걸개	2	뒤집개	4	자르개	9	열개	17	뜨개
1	떼개	2	뚜르개✓	5	깎개	10	밀개	20	부침개
1	뚜지개	2	불쏘시개	5	따개	11	얼개	22	덮개
1	멈추개	3	돌개	6	흘리개	15	쑤시개	86	베개
1	버개	4	싸개	7	새기개	15	지우개	129	찌개
1	병마개	4	노리개	8	가리개	15	찍개	252	날개
1	쓰개	4	밀씻개	8	쓸개	17	마개	n<50:253, n<2:11N:0 유형:38	
2	깎개	4	병따개	8	찌르개	17	굵개		

<표 8> 접미사 ‘-개’의 派生語와 頻度

‘-개’는 동사어간과 결합하여 도구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 ‘-개’가 만들어낸 파생어의 종류는 38가지인데 이중 1~2회 출현어는 11개, 新語는 0개이다.¹⁵⁾ 1~2회 출현어가 전체의 29%(11/38)를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존 단어들이 사용빈도가 줄어든 결과이거나 본래 저빈도어로 생산성을 반영하는 예는 아니다. ‘-개’ 파생어는 유형빈도도 낮고 1~2회 출현어의 수가 모두 작는데 이는 ‘-개’의 쓰임이 현대국어에서 상당히 制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도구명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를 사용해서 새 단어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¹⁶⁾ 다만 고고학적인 글에서만 도구명으로 쓰이는 몇몇 저빈도어가 있을 뿐이다. ‘-개’의 생산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5) ‘뚜르개’만이 新語로 판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뚜르-’라는 語基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新語로 인정하지 않는다

16) *쓸개(비), *입개(옷), *박개(망치), *불이개(테이프), *쓰개(연필), *담개(그릇), *치개(방망이)

접미사 ‘-개’의 生産性
$\frac{0}{253} \times 100 = 0$

이 수치가 보여주듯 ‘-개’는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것이 ‘-개’의 기능과 의미가 완전히 化石化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의 경우, 새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는 않지만 실험적 상황에서 만든 단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종의 沮止現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에 대한 分析的 理解力은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명사파생접미사 ‘-질’

1	갈퀴질	1	면도질	1	접골질	2	돌개질✓	35	부채질
1	괭이질	1	물레질	1	조리질	2	돌팔매질	35	주먹질
1	그네질	1	물장구질	1	좀도둑질	2	땀질	36	삽질
1	그랭이질✓	1	줄달음질	1	중질	2	분탕질	36	바느질
1	기자질	1	백정질	1	채근질	2	불질	38	손가락질
1	끌칼질	1	비럭질	1	타울질	2	비질	40	구역질
1	농탕질	1	빈지질✓	1	투망질	2	점질	42	발길질
중 략									
1	다듬질	1	사레질	1	페달질	2	패악질	67	도둑질
1	다툼질	1	삼발질	1	해적질	2	해적질		n<50:933, n<28, N:13, 유형:152
1	닭달질	1	순갈질	1	헛발질	2	화냥질		
1	담배질	1	쌈박질	1	험박질	2	회초리질		

<표 10> 접미사 ‘-질’의 派生語와 頻度

‘-질’은 명사를 어기로 취하여 그 명사와 관련된 반복된 행위를 뜻하는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 ‘-질’이 만들어내는 파생어의 종류는 152개이고 이중 1~2회 출현어는 85개, 新語는 9개이다.¹⁷⁾ 1~2회 출현어가 전체 유형의 56%(85/152)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단어들이 섞여 있다. 즉시적 필요에 의해 새로 생성된 단어들이 한 부류이고, 기존

17)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코퍼스에서 新語로 판정할 수 있는 ‘-질’ 派生語는 13개인데 이 중 ‘빈지질’, ‘그랭이질’, ‘떡메질’, ‘돌개질’은 語基가 低頻度語이거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新語로 인정하지 않아 ‘-질’ 派生語 중 新語는 9개이다.

단어들 중 사용빈도가 줄어든 것이 또한 부류이다. 前者는 ‘-질’의 생산성을 반영하지만 後者는 ‘-질’ 파생어 중 소멸의 단계에 놓인 단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 파생어의 내부에서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질’의 생산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접미사 ‘-질’의 生産性		
$\frac{9}{933}$	X 100 =	0.964630

직관적으로 ‘-질’은 상당히 생산적인 접사로 생각되는데 실제 계량의 결과는 이 直觀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째는 유형빈도에 바탕을 둔 생산성에 대한 직관에 오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유형빈도와 생산성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유형빈도가 생산성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본고의 자료가 문어 코퍼스라서 ‘-질’의 생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이유는 코퍼스 자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겠지만 현대국어에서 ‘-질’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면 ‘-질’의 생산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修正되어야 한다.

5) 동사파생접미사 ‘-거리-’와 ‘-대-’

‘-거리-’와 ‘-대-’는 의성·의태어를 어기로 취하여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로 둘 모두 매우 생산적인 접미사로 파악되어 왔다. 유사한 의미를 가진 두 접사가 어떤 量的 特性을 보이면서 경쟁하며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슴뻑거리	1	식식거리	1	빠그덕거리	3	가르랑거리	9	가물거리
1	철그렁거리	1	달각거리	1	짱짱거리	3	푸드덕거리	9	버석거리
1	힝힝거리	1	큘큘거리	1	짱알거리	3	펼떡거리	9	간당거리
1	힐금거리	1	쿨썹거리	1	지글거리	3	쿨룩거리	9	일렁거리
1	몽실거리	1	찢뚝거리	1	사각거리	3	쿨렁거리	9	얼썤거리
1	히쭈거리	1	쿨럭쿨럭거리	1	사그락거리	3	탈탈거리	9	징징거리

종 략								
1	능글거리	1	지직거리	3	거치적거리	8	너덜거리	398 중얼거리
1	우지끈거리	1	비실비실거리	3	바동거리	9	하늘거리	n<50:2805,n<2:304 N:50, 유형:538
1	다독거리	1	숙덕거리	3	몽그적거리	9	펼럭거리	

<표 11> 접미사 ‘-거리-’의 파생어와 빈도

‘-거리-’가 만들어낸 파생어는 총 538가지인데 이중 1~2회 출현어는 304개(57%), 신어는 50개이다. 전체 538종류의 단어 중에서 빈도 수 50회 이상의 단어가 11개이며 100회 이상의 고빈도 단어는 ‘머뭇거리-’(113회)와 ‘중얼거리-’(398)뿐이다. ‘-거리-’ 파생어는 전체적으로 저빈도 단어가 다수인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1	간드랑대	1	보글대	1	집적대	2	쭈군대	4	징징대
1	가웃대	1	벌렁대	1	쭈뼛대	2	썰룩대	4	쫄알대
1	거들먹대	1	보글대	1	찢벌대	2	우글대	4	헉헉대
1	경동대	1	복닥대	1	찢얼대	2	웅얼대	5	너울대
1	군시렁대	1	부스럭대	1	출랑대	2	주절대	5	서성대
1	굽신대	1	비비대	1	캐캐대	2	첨병대	5	찢러대
1	글썽대	1	비비적대	1	쿨룩대	2	출렁대	5	추근대
종 략									
1	바동대	1	중얼대	2	사각대	4	소곤대	n<50:451, n<2:103 N: 5, 유형:143	
1	번질대	1	지끈대	2	싱글대	4	어른대		
1	벌렁대	1	질금대	2	쌔근대	4	올러대		

<표 12> 접미사 ‘-대’의 파생어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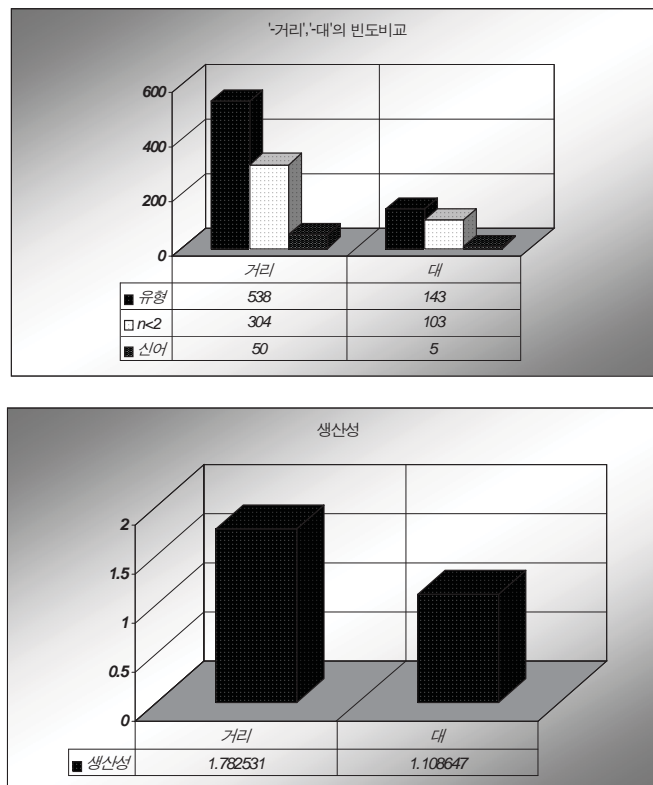
‘-대-’가 만들어낸 파생어의 종류는 총 143가지인데 이중 1~2회 출현어는 103개, 신어는 5개이다. 1~2회 출현어가 전체 유형의 72%를 차지한다. 이比率만으로 판단하면 ‘-대-’의 생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수치가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쟁 접사인 ‘-거리-’에 ‘-대-’가 밀린 결과가 1~2회 출현어의 고비율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거리-’와 ‘-대-’가 동시에 취하는 어기로 만들어진 ‘-거리-’ 파생어와 ‘-대-’파생어의 빈도를 비교해 보면 ‘-거리-’ 파생어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43종류의 단어 중에서 최고 빈도 단어는 28회(‘허둥대-’)로 ‘-대-’ 파생어 집합은 低頻度 단어의 다수 집합을 형성하지만 이 패턴이 생산성을 반영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접미사 ‘-거리’와 ‘-대-’의 생산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접미사 ‘-거리-’의 생산성			접미사 ‘-대-’의 생산성		
$\frac{50}{2805}$	X 100 =	1.78253	$\frac{5}{451}$	X 100 =	1.10864
		1			7

‘-거리-’와 ‘-대-’의 파생어 집합을 검토하면서 예상한 바대로 ‘-거리-’가 ‘-대-’보다 더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가 ‘-거리-’와의 경쟁에서 밀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접미사의 量的 特性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4> 접미사 ‘-거리-’, ‘-대-’의 頻度 및 生産性 비교



유형빈도와 생산성 모두 ‘-거리-’가 ‘-대-’보다 크게 앞선다. ‘-거리-’와 ‘-대-’는 대체로 같은 어기를 취하여 비슷한 의미의 파생어를 만들면서도 서로 沮止現象을 보이지 않는 접사로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왔는데,¹⁸⁾ 이는 沮

18) 조남호(1988), 송철의(1992), 채현식(2000).

止現象을 경쟁하는 단어의 相補的 出現이라는 관점에서 ‘-거리-’와 ‘-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경쟁하는 두 접미사가 만들어내는 파생어 집합의 양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경쟁하는 단어들 사이의 양적 차원에서는 沮止現象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6) 형용사파생접미사 ‘-스럽-’, ‘-롭-’, ‘-的’

1	가공스럽	1	비탄스럽	1	한탄스럽	3	짐스럽	8	저주스럽	19	호들갑스럽
1	가린스럽	1	비통스럽	1	허망스럽	3	태연스럽	8	천연덕스럽	20	불만스럽
1	간살스럽	1	상스럽	1	호랑이스럽	3	한스럽	8	충성스럽	21	감격스럽
1	갈신스럽	1	생급스럽	1	혼미스럽	4	과장스럽	8	표독스럽	21	자유스럽
1	거미스럽	1	생똥스럽	1	휘황스럽	4	그악스럽	9	경사스럽	23	신비스럽
1	겉신스럽	1	성가스럽	1	홍치스럽	4	까탈스럽	9	끔찍스럽	23	장난스럽
1	바웬사스럽	1	진실스럽	3	망신스럽	8	감탄스럽	15	한심스럽	353	조심스럽
중 략											
1	백치스럽	1	착종스럽	3	생경스럽	8	갑작스럽	16	정성스럽	553	자연스럽
1	번잡스럽	1	추잡스럽	3	소망스럽	8	공포스럽	16	죄스럽	n<50:1747, n<2:120 N: 30유형: 259	
1	변란스럽	1	추접스럽	3	신산스럽	8	구차스럽	17	변덕스럽		

<표 13> 접미사 ‘-스럽-’의 파생어와 빈도

‘-스럽-’, ‘-롭-’, ‘-的’은 명사나 어근을 어기로 취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¹⁹⁾ 그 의미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語基의 성격이 있는’의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의미의 세 接辭가 어떤 양적 특성을 보이면서 경쟁하며 사용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럽-’이 만들어낸 파생어는 총 259가지인데 이중 1~2회 출현어는 120개, 신어는 30개이다. 1~2회 출현어가 전체 유형의 40%(120/ 259)를 차지한다. ‘-스럽-’이 현대국어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는 증거는 ‘바웬사스럽-’, ‘인텔스럽-’, ‘코믹스럽-’처럼 그 필요에 따라 고유명사와나 외래어와도 자연스럽게 결합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⁰⁾ ‘-스럽-’ 파생어는 ‘혼란스럽-’(125), ‘자랑스럽-’(150), ‘고통스럽-’(155), ‘조심스럽-’(353), ‘자연스럽-’(553) 등의 예만

19) 김창섭(1996:186~189)에서 지적한 대로 ‘-적’에 의한 파생어는 통사범주 상으로는 명사이지만 그 의미가 기능은 형용사적이기 때문에 ‘-스럽-’, ‘-롭-’과 함께 다루었다.

20)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스럽-’은 생산성의 직접적 증거라기보다는 유희적 어형성에 가까운 임시적 조어로 생각된다.

이 고빈도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는 저빈도 단어의 다수 집합으로 구성된다.

1	고요롭	1	한유롭 _u	6	수고롭	24	여유롭	58	신비롭
1	공의롭	1	화해롭	7	명예롭	26	슬기롭	58	한가롭
1	다사롭	2	은혜롭	9	상서롭	32	대수롭	77	위태롭
1	득의롭 _u	2	의미롭	10	호기롭	33	감미롭	89	풍요롭
1	보배롭	3	가소롭	12	이채롭	33	예사롭	132	평화롭
1	생기롭	3	영화롭	12	자애롭	39	지혜롭	176	흥미롭
1	신이롭	4	의롭	17	경이롭	40	조화롭	517	자유롭
1	영예롭	4	자비롭	17	정의롭	43	공교롭	n<50:509 n<2:15 N:1유형:52	
1	임의롭	4	적요롭	17	호화롭	45	순조롭		
1	자재롭	5	공포롭	20	권태롭	52	다채롭		
1	정교롭	5	단조롭	22	따사롭	53	향기롭		

<표 14> 접미사 ‘-롭-’의 派生語와 頻度

‘-롭-’이 만들어낸 派生語는 총 52가지이며 이중 1~2회 출현어는 총 15개, 新語는 1개이다.²¹⁾ 1~2회 출현어가 전체 유형의 29%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새로 생겨서 빈도가 낮은 단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단어들이 사용빈도가 줄어들어 1~2회 출현어에 포함된 예라 할 수 있다. 52개의 유형 중에 50회 이상의 출현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9개(18%)이고 ‘흥미롭-’(176), ‘자유롭-’(517) 등의 몇 단어에 빈도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고빈도이기 때문에 어기 접사의 결합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몇몇 단어만 살아남고 전체 패턴은 消滅해 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롭-’ 파생어의 이러한 특성은 ‘-롭-’의 생성력이 현대국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1) 新語로 판정할 수 있는 단어는 3개가 관찰되었는데 이중 ‘득의’와 ‘한유’는 低頻度 語基이기 때문에 ‘득의롭-’, ‘한유롭-’은 新語로 인정하지 않는다 ‘득의롭-’, ‘한유롭-’의 두 단어가 표준사전과 1999년 이전에 출판된 텍스트에서 관찰되지는 않지만 조사 대상 코퍼스(약 440만 어절)에서 ‘득의’는 4회 ‘한유’는 1회 출현하였다.

1	2분법적	1	불만적	1	지상주의적	2	사익적	14	공익적	41	권력적
1	80년대적	1	불변적	1	지식인적	2	사족적	14	굴욕적	41	서구적
1	90년대적	1	불사적	1	지원적	2	사활적	14	다차원적	41	선택적
1	Advocacy적	1	봉당적	1	지중해적	2	생활적	14	도전적	41	이중적
중 략											
1	분산적	1	즉물적	2	분할적	3	이단적	39	우발적	894	정치적
1	분업적	1	즉시적	2	비례적	3	이비인후과적	39	위협적	1220	사회적
1	분자적	1	증량적	2	사관적	3	인간주의적	39	인공적	n<50:13,099	
1	분절적	1	증상적	2	사대적	3	인류적	39	충동적	n<2:120 N:370	
1	분화적	1	지대적	2	사론적	3	인터랙티브적	40	경험적	유형:2,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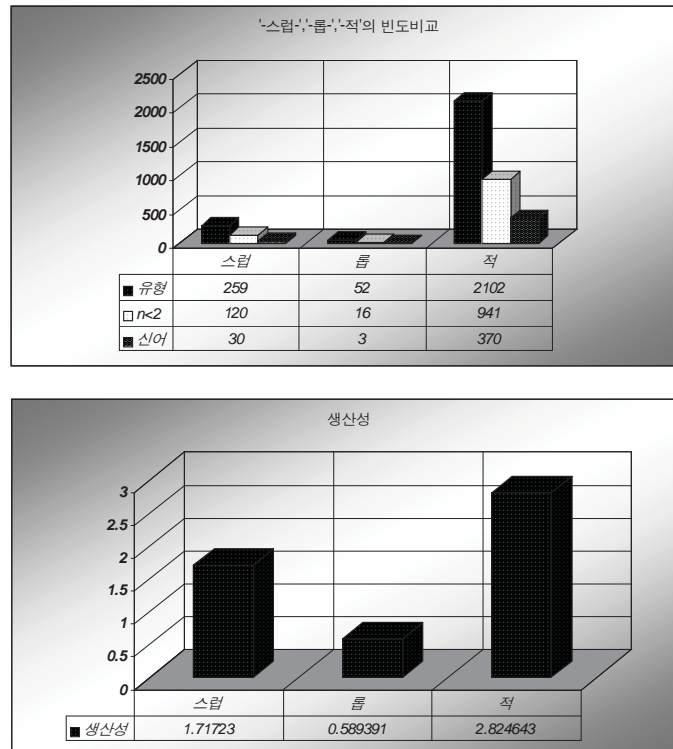
<표 15> 접미사 ‘-的’의 派生語와 頻度

‘-的’이 만들어낸 파생어는 총 2102개 인데 이중 1~2회 출현어는 696개, 新語는 370개이다. 1~2회 출현어가 전체 유형의 40%(696/2,102)를 차지 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즉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생성된 단어이다. ‘-的’ 파생어는 빈도 100회 이상의 단어를 114개(5.4%) 가지는 저빈도 단어가 다수인 패턴을 구성한다. ‘-的’은 상당히 광범위한 명사 및 어근을 어기로 취하여 단어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스럽-’, ‘-롭-’, ‘-的’의 生産性を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접미사 ‘-스럽-’의 生産性 $\frac{30}{1747} \times 100 = 1.71723$	접미사 ‘-롭-’의 生産性 $\frac{1}{509} \times 100 = 0.196463$
접미사 ‘-적’의 生産性 $\frac{370}{13099} \times 100 = 2.824643$	

‘-롭-’의 생산성은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반면 ‘-스럽-’과 ‘-的’은 매우 생산적인 양상을 보인다. ‘-롭-’은 생산성이 0인 ‘-개’를 제외한 모든 파생접미사 가운데서 가장 생산성이 낮는데, 이처럼 ‘-롭-’의 생산성이 제약을 받는 이유는 ‘-롭-’의 기원적 성격 때문에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나 어근만을 어기로 취한다는 점과 ‘-스럽-’과 ‘-的’이 기존에 ‘-롭-’이 취하던 語基를 자신의 語基로 취한다는 점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 접미사의 양적 특성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5> 접미사 ‘-스럼-’, ‘-롭-’, ‘-적’의 頻度 및 生産性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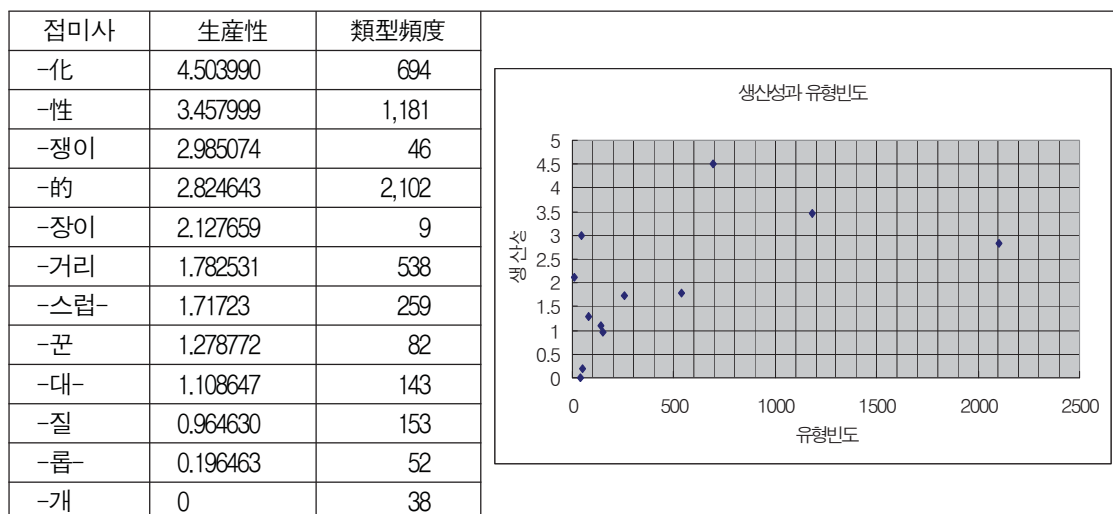


IV. 生産的 패턴과 非生産的 패턴의 特性

Ⅲ장에서는 12개 접미사가 각각 만들어내는 파생어의 양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각 접미사별 양적 특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접사와 비생산적인 접사가 각각 만들어내는 파생어 집합의 양적 특성을 比較・對照하여 파생접사의 생산성이 어디서 근원하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生産성과 類型頻度

생산성에 대한 화자의 直觀은 대체로 類型頻度に 근거한다. 접사가 만들어진 파생어가 많을수록 그 접사의 생산성이 높다는 믿음이 그것인데 實際的 計量을 통해서 생산성과 유형빈도의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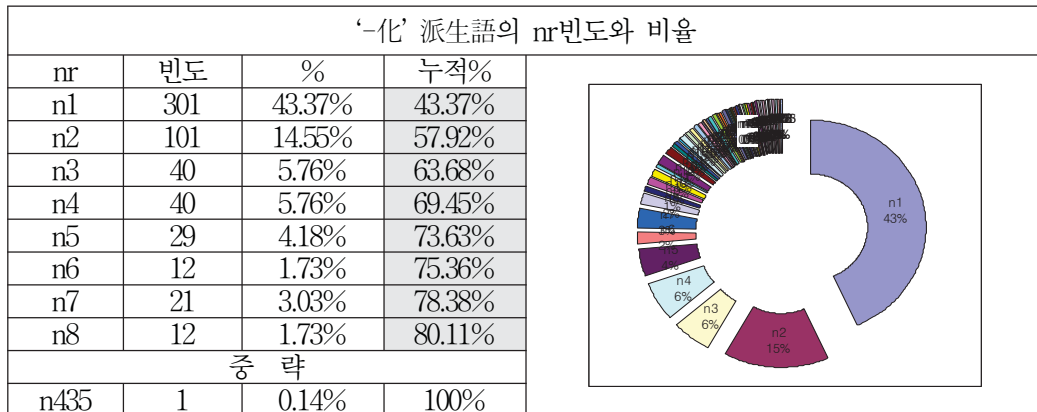


<표 7, 그래프 7> 각 접미사의 生産성과 類型頻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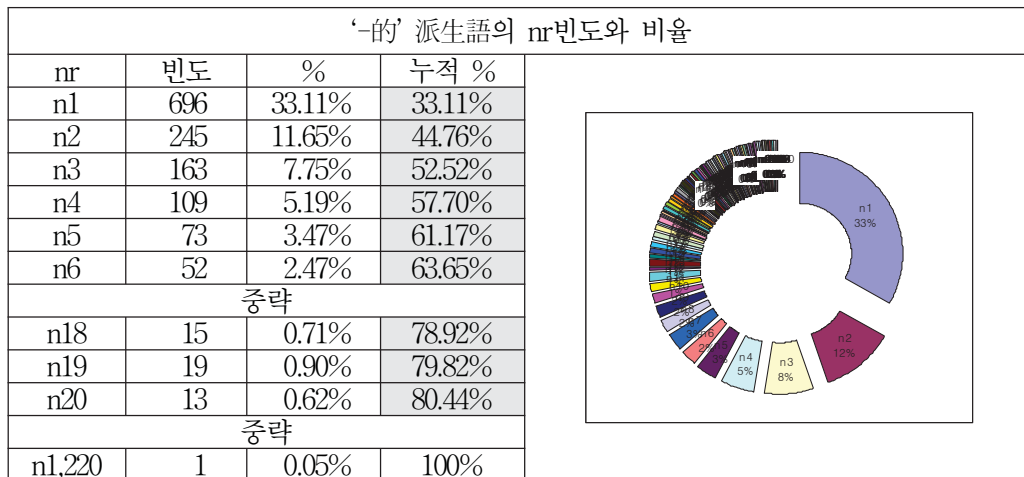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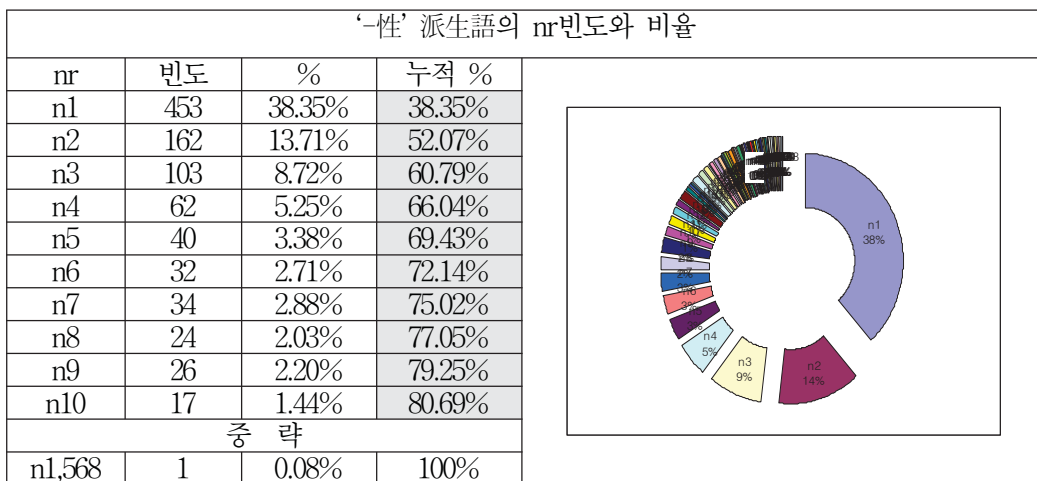
생산적인 접사는 대체로 600회 이상의 높은 유형빈도를 보이는 반면에 비생산적인 접사는 대체로 150회 이하의 낮은 유형빈도를 보인다. 생산적인 접사는 대체로 유형빈도가 높고 비생산적인 접사는 대체로 유형빈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빈도와 생산성이 算術的인 正比例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즉, 생산성 수치가 높은 접미사가 만들어낸 파생어의 유형빈도가 높긴 하지만 유형빈도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새롭게 생성되는 단어는 없으면서도 이전에 생성된 단어들이 持續的으로 사용되어 유형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的’의 유형빈도가 제일 높지만 그 생산성은 ‘-化’나 ‘-性’보다 낮은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높은 유형빈도가 높은 생산성을 충분하게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접사의 생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형빈도 이외의 다른 조건을 더 살펴봐야 한다.

2. 생산성과 개별빈도token frequency의 분포

1) 生産的인 派生語 集合의 個別頻度token frequency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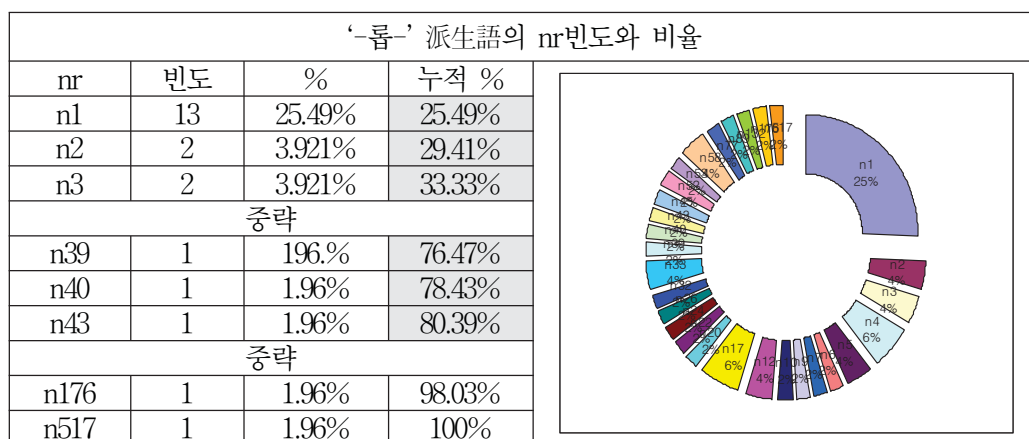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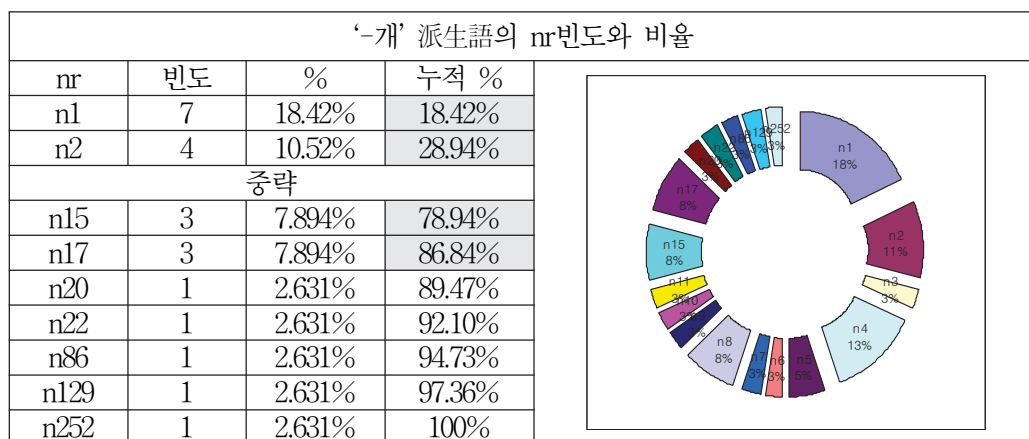
‘-化’는 접미사 중 최고의 生産性 數值(4.50)를 보인다. 8회 출현어까지의 누적빈도가 전체 유형(694개)의 80%를 차지한다. ‘-化’ 파생어 집합은 다수의 저빈도 단어가 주축이 되는 집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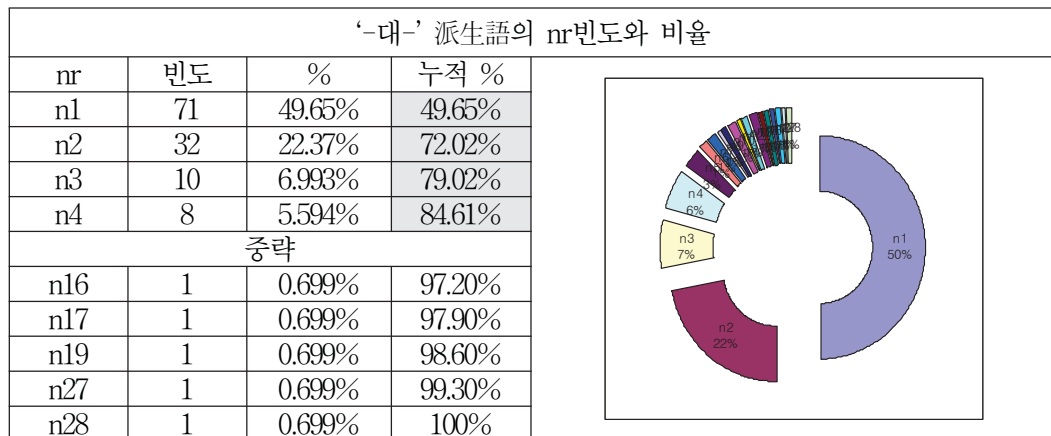
‘-性’은 ‘-化’ 다음으로 생산성 수치가 높은 접미사이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회 출현어까지의 누적빈도가 전체 유형(1,181개)의 80%를 차지한다. ‘-性’ 파생어의 집합도 다수의 저빈도 단어가 구성원의 대부분을 이루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的’도 ‘-化’, ‘-性’에 이어서 생산성 수치가 높게 측정된 접미사이다.(2.82) 20회 출현어까지의 누적빈도가 전체 유형(2,102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的’ 파생어 집합도 다수의 저빈도 단어가 전체의 대부분을 점하는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생산성 수치가 높은 접미사가 이루는 파생어 집합의 量的 特性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다수의 저빈도 단어가 전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② 고빈도 단어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2) 非生産的인 派生語 集合의 個別頻度token frequency 分布



‘-개’는 대상 접미사 중에서 생산성 수치가 가장 낮은 접미사이다.($p=0$) 위의 표와 그래프를 보면 저빈도어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고빈도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생산적인 패턴이 갖는 전형적인 모습을 ‘-개’ 파생어 집합의 量的 特性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롭-’은 ‘-개’ 다음으로 그 생산성 수치가 낮은 접미사이다.($p=0.19$) ‘-개’보다는 저빈도어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저빈도어가 전체 유형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고빈도어의 비율이 높다.



‘-대-’도 생산성 수치가 작게 측정된 접미사다.($p=1.10$) 그러나 ‘-대-’ 파생어 집합은 생산적인 패턴이 보이는 특성과 완전히 동일한 양적 특성을 가진다. 저빈도 단어가 전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빈도어의 다수집합이 늘 접사의 생산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대-’ 파생어 집합에 저빈도어가 다수 존재하는 이유는 비슷한 의미·기능을 갖는 ‘-거리-’와의 경쟁에서 ‘-대-’가 밀려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 파생어 집합에 속하는 다수의 저빈도어는 生産性を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沮止現象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생산성 수치가 낮은 접미사가 이루는 파생어 집합의 量的 特性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저빈도 단어가 전체 유형의 다수를 점하지 못한다.
- ② 고빈도 단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③ 저빈도 단어가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더라도 그것은 저지현상의 결과이다.

V. 結論：生産性の 條件

앞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패턴이 갖추고 있는 공통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형빈도가 높아야 한다.
 - 본고의 조사 결과 최소 200회는 넘어야 한다.
- ② 多數의 저빈도 단어로 전체 집합이 構成되어야 한다.
 - i) 저빈도 단어가 이전부터 사용되던 단어의 사용빈도가 감소한 결과여서 안 된다.
 - ii) 저빈도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접사와의 경쟁으로 발생한 저지의 결과여서 안 된다.

생산성을 결정하는 데는 類型頻度와 파생어의 빈도분포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생산성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유형빈도보다는 파생어의 빈도분포라 할 수 있다. 파생어 집합이 다수의 저빈도 단어로 구성될 때, 이 저빈도 단어는 접사에 대한 分析的 處理를 반복하게 해 주기 때문에 접사에 대한 分析的 認識이 강해진다. 즉, 저빈도 단어는 접사의 生成力을 살아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다수의 저빈도 단어를 보유하고 있는 접사는 새로운 어기와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어 새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潛在力이 그만큼 커진다.

◇ 參 考 文 獻 ◇

- 강범모·차준경(1996), 「코퍼스, 파생어, 생산성」, <인지과학> 7-2, pp.21~37.
- 김창섭(1984/1993),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형태』, 태학사, pp.151~181.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송원용(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이광호(2005), 「연결망과 단어형성」, <국어학> 46, 국어학회, pp.125~145.
- 조남호(1988), 「現代國語의 派生接尾辭 研究」, <국어연구> 8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차준경(1995), 「한국어 파생어의 생산성에 대한 계량적 접근」,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Anshen, F. & Aronoff, M.(1981), Morphological productivity and phonological transparency,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26, pp.63~72.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 Baayen(1989), *A Corpus-Based Approach to Morphological Productivity, Statistical Analysis Psycholinguistic Interpretation, Dissertation*, Vrije University, Amsterdam.
- Baayen, R. Harald and Antoinette Renouf(1996), Chronicling The Times: productive lexical innovation in an English newspaper, *Language* 72, pp.69~96.
- Baayen, R. Harald and Lieber, Rochelle(1991), Productivity and English word-formation: a corpus-based study, *Linguistics* 29, pp.801~843.
- Baayen, R. Harald(1991), *Quantitative aspects of morphological productivity*, In Yearbook of Morphology 1991, Geert Booij and Jaap van Marle (eds.), Dordrecht: Kluwer Academic, pp.109~150.
- Baayen, R. Harald(1993), *On frequency, transparency and productivity*, In Yearbook of Morphology 1992, Geert Booij and Jaap van Marle (eds.), Kluwer Academic, pp.181~208.

-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er, L.(2001), *Morphological Produc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iner, D.(1948), On defining the morpheme, *Word* 4, pp.18~23.
- Brown(2001), Modifying Baayen: Can a Corpus Count Provide a Reasonable Measure of Morphological Productivity?, <http://rabrown.bol.ucla.edu/>
- Bybee, J. L.(1985), *Morph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ybee, J. L.(1988), Morphology as lexical organization, in M. Hammond & M. Noonan (eds.), *Theoretical Morphology*, San Diego: Academic Press, pp.119~141.
- Hay, J. (2001), Lexical frequency in morphology: Is everything relative? *Linguistics* 39-4, pp.1041~1070.
- Matthew(1974), *Morphology: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ag, I.(1999), *Morphological productivity*, Structural constraints in English derivation,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Plag, I.(2003), *Word-formation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ag, I.(2004), *Productivity*,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 Elsevier.
- Spencer(1991), *Morphological theory: an introduction to Word Structure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Productivity of Derivational Suffixes an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Lee, Kwang-ho

This paper defines the productivity as possibility to generate new words and approaches the productivity on the point of probabil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roductivity of 15 suffixes and clarify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frequency pattern between productive suffix and unproductive suffix. There are high type frequencies in derivatives which have high productivity index. But the higher type frequency is, the higher productivity index is not. There is direct proportional relation between productivity and type frequency. The more important thing than type frequency in productivity is a frequency distribution of derivatives. In the group of derivatives which a highly productive suffix generates, the group will comprise large number of low frequency words. Whereas in the group of derivatives which a unproductive suffix generates, the group will comprise large number of high frequency words. It is the low frequency words that keeps suffix's generating capacity alive. Low frequency words make a speaker repeat a analysis of suffix and so make a analytical understanding of a suffix strong. As a result of this, a suffix with large number of low frequency words gets more chance to create a new word.

※ Key-words : productivity, suffix, derivative, type frequency, token frequency, frequency distribution, corpus